

제3강: 성기 르네상스[1490~1530] 시대의 건축가

◆ 1교시: 브라만테의 건축

▲ 성기 르네상스의 완성자, 브라만테

하이 르네상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브라만테(Bramante)입니다. 전 시간까지 했던 것이 초기 르네상스였고요. 브라만테가 성기 르네상스를 열고 완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성기 르네상스는 거의 브라만테 한 사람으로 대표가 됩니다. 뒤에 라파엘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 사람 경력을 보면 밀라노에서 활동을 하고 99년에 로마로 와서 죽을 때까지 활동합니다. 90년 전까지는 중세주의를 바탕으로 장식 경향을 보이고요.

이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밀라노에 있을 때 성기 르네상스의 징조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는 성기 르네상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기 르네상스의 시점을 브라만테가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80년, 로마로 온 것으로 보면 99년,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 1490년입니다.

성기 르네상스의 시점을 한 가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르비노 근교에서 태어났고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이 시기 자체가 오늘날과 같은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규모가 숫자가 지금과 같지 않죠. 그러나 작품을 통해서 르네상스 이상을 잘 완성한 사람이죠. 건축으로만 보면 알베르티 같은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명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전기적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출신 년도도 남아있지 않고 출신가문, 교육배경, 결혼 유무까지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요. 로마로 넘어온 다음에는 기록이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화가로 시작했는데요. 그림 배경에 건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 벽체 고전 중심에 로마 고전주의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으로 전업을 밀라노 성당 공정에 참여하면서 하지요.

148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공정으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만나서 영향을 많이 받지요. 특히 중앙 집중형 공간을 통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물은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만 습작을 통해서 건축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중앙 집중형 실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축가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브라만테의 성기 르네상스 경향은 ultima maniera로 불립니다. 궁극적인 방식이라는 뜻이죠. 로마 고전주의의 최종 완성상태이죠.

이것이 밀라노에 있을 때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1492년에 루이 12세의 밀라노 침공을 전후로 해서 로마로 피신합니다.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피신하려 했다가 여기에 눌러 앉아 평생 여생을 보내면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은 불우했습니다. 불우했다기보다는 사비를 털어서 로마 고전 유적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의 눈에 들죠.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교황들이 로마 재건을 벌였다 그랬죠.

그 방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건축 토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 안에 건축 공방이 생기게 되죠. 그 안에서 총책임자로 브라만테가 뽑히게 됩니다.

1503년에 즉위한 율리우스 2세에게 발탁되어 교황청 공방을 맡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의 60이 다 되어서입니다. 저도 희망을 가져야죠. 공방에서는 자신의 작품설계 감리, 로마 재건계획의 이반과 총괄, 건축가들의 교육양성,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율리우스 2세와 브라만테는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성격이 급했고 죽을 때도 1년 차이 인가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사망합니다. 십 년 약간 넘는 시기인데요. 지금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요.

옛날에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한 데다가요. 브라만테는 성격이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덕도 심하고요. 특히 설계할 때 수시로 안을 바꿔서 밑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장이 술 한잔 걸치고 와서 걸치고 와서 들고 온 거대로 고치라고 해서 마감이 내일인데 밤새 고치고, 우리나라에서도 허다한 일이죠.

로마 재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을 많이 허물었어요. 그래서 브라만테는 마에스트로 로비난테, 파괴의 대가라는 악명도 얻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을 했고 작품도 남겼죠. 지금의 바티칸 교황청, 성 베드로에 입안해서 기초까지 닦은 것이 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죠. 그 전의 구 성 베드로의 자리에 똑같은 이름에 지금의 교황청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150년 이상 걸리는 첫 공사의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가 다시 기독교의 총본산이 되면서 다시 인본주의의 총본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로마 고전주의와 기독교를 동시에

대표하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지요.

인본주의는 로마 고전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는 교황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대표하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피렌체 등의 일개 금융가문의 소범위를 벗어나 로마 고전주의와 기독교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죠. 서양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로마 고전주의, 기독교를 르네상스가 포괄하게 되면서 알프스 이북지역에서도 이를 자기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개 상업가문의 일이었던 반면 이제 전 유럽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브라만테가 교황과 죽이 잘 맞아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건축은 골방에 틀어박혀서만 되는 게 아니지만 물론 작품이 잘 되지 않는데 설치고만 다니면 더 곤란하죠. 장돌뱅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나만 잘 하기도 어려운데 작품성이나 예술성까지 갖추어야 하니까요. 한 명의 위대한 건축가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죠. 반면 그런 한 명의 위대한 건축가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하는지는 지금 우리가 똑똑히 겪고 있잖아요.

건설회사의 농간이다 뭐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작품으로 세상을 휘어잡을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다 보지 못한 거죠. 이게 건축의 다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명의 건축가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브라만테는 성격은 이상하고 까다로웠지만 어쨌든 개인의 예술적 소질과 사회적 상황이 잘 맞물렸던 거죠. 당시에는 도시 금융가문 아니면 기독교였지요. 이런 사회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거죠.

브라만테의 이 교황청 공방에서는 16세기 건축을 이끌어갑니다. 베네치아나 이탈리아 북쪽 지방의 건축을 이끌어간 건축 대가들이 다 여기를 거쳐 갔습니다. 라파엘은 브라만테의 직접 제자였습니다.

라파엘의 제자인 줄리안 로마노와 그 외의 베네치아 지방의 산소비노 등이죠.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여기를 거쳐 갑니다. 건축가 양성학교 역할도 겸하는 중요성을 갖죠.

▲ 브라만테의 건축 양식

브라만테가 르네상스를 완성한 경향은 중앙 집중형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은유적인 오더 사용법이지요. 중앙 집중형은 공간 기피와 기하학적성, 두 가지를 보이죠. 첫 번째 작품이 밀라노에 있는 Sante Mario Presso San Satiro입니다.

좀 길지만 이게 한 건물의 이름입니다. Presso는 near라는 뜻이죠. Sante Mario 근처에 있

는 San Satiro라는 말이죠. 사진 보면 평면도가 있죠. 그림 160입니다. 사실 이것은 라틴 크로스에다가 중앙 집중형을 섞는 거죠.

앞에서 알베르티 등의 사람들도 중앙 집중형을 섞는 것을 많이 봤지만 조건이 매우 좁았지요. 돔을 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소(聖所)가 문제였지요. 성소 부분의 공간감이라는 것이 뒤쪽까지 봐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쓴 트릭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일소점 투시도를 이용해서 기둥을 그립니다. 실제로는 뒤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그것을 찍어 놓은 것이 그림 167인데요. 제대로 된 공간 기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소점 투시도를 통해 기둥을 만들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시도 조작인데요. 화가 경력을 이용한 시각적 트릭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나누어 준 빠비아 성당이 있죠. 그림 168입니다. 이것은 자문만 맡았는데요. 브라만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얘기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크로싱의 성소 부분에 브라만테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걸로 얘기됩니다.

중심에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선 방향으로 해서 공간이 퍼져 나가면서 공간이 여러 개로 나타나죠. 반지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것 같은 겁니다. 중간에 큰 공간이 있고 바깥으로 한 겹, 두 겹, 네 귀퉁이로 별사탕 같은 것이 네 개. 공간이 여러 겹이 되는 거죠,

그 이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공간과는 많이 다른 그만의 겹공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소의 중앙 집중형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브루넬레스키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피렌체의 산 로렌초와 비교하면 드러나고 심지어 알베르티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성소에 중앙 집중성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규모, 덩어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공간의 중앙 집중성 자체도 강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이상이 좀 더 발전되어서 무르익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건물이 그림 171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건물인데요. 외관은 조금 있다 나올 겁니다. 아마도 지름이 10미터도 넘지 않을 겁니다.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건물이죠.

큰 건물의 부속 건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건물은 작지만 베드로의 권위를 표현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서는 오더를 사용하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권위를 표현하게 되죠.

오더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몰아서 할테고요. 여기서는 다섯 개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무덤 재단? 그 옆에 원형열주. 중심 부분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네 단의 계단, 두 겹의 원형 열주. 이것이 차례대로 돌려 처지면서 다섯 겹의 공간이 되게 됩니다.

무덤 재단이 한 겹, 원형열주와 중심 부분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네 단의 계단,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두 겹의 원형열주. 두 겹 중의 한 곳은 실내공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외부공간의 복도처럼 되어 있는 거죠.

동심원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로마 시대 때 원형 무덤을 모델로 삼은 것이죠. 혹은 순교자 기념 교회죠. 정식 교회나 성당은 아니지만 순교자 기념 건물을 모델로 삼았던 것이죠.

중앙 집중형 공간이 절정에 달한 건물은 로마 교황청 건물이지요. 올드 세임 피터스가 너무 오래되고 규모도 작고 하니까 새로 지어야겠다는 논의가 전임 교황 니콜라이 5세 때부터 있었다는 얘가지요.

니콜라이 5세는 알베르티를 고용해서 로마 재건 계획을 추진했던 교황이죠. 이때는 로젤니로라는 건축가가 기본 골격을 놔둔 채 성가대 부분만을 확장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자는 얘기가 나와 새로 짓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개축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초를 다진 것은 사실입니다. 브라만테의 원안(原案)은 그림 175입니다. 양피지 도면이라고 해서 양첩질에 도면을 그린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브라만테의 것인지 백 퍼센트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90퍼센트는 그의 것이라고 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브라만테의 원안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원체 그 자신도 원안을 수시로 바꿨기 때문이기도 하죠. 기초는 시작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서너 개의 안을 갖고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중요한 건물의 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놀랍겠지만요.

특히 서양 문명이 기록 문명이라고 볼 때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브루넬레스키가 도면을 처음 그리기 시작하고 미켈란젤로는 하나도 안 남아있지요. 르네상스 때만 해도 도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케치 하면 그것을 현장에 들고 가 장인들과 의논해서 경험적으로 하는 거지요. 중세적 방식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나 브라만테의 안을 보여주는 극히 몇 개 안 되는 기록 중의 하나가 그림 173, 메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지금 지어진 것과 비교해 보면요. 실내 분위기는 그림 174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어준 것과 대강 맞아 떨어집니다. 또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그의 제자인 라파엘이 그린 회화 그림들에 나타납니다.

아테네 학파라는 그림인데요. 공간배경이 성 베드로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어쨌든 동심원 구조의 방사선 구성을 합한 벽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알베르티와 비교해 보죠. 그림 131과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느껴집니까. 131은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림 175는 무언가를 쌓았다기보다는 주물러서 만든 거 같아요.

아니면 좀 바꿔 말하면 큰 고평체를 파서 만든 거 같아요. 알베르토의 작품은 축조작이라고 하고 이것은 volumetr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언가 큰 한 덩어리를 파낸 것 같은 거죠.

공간 전체를 육중하고 무겁게 만드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덩어리감, 물질성이죠. 템피에토에서 추구했던 3차원 고평체가 대형으로 확대된 것 같은 특징을 보이죠. 벽체 구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구식 구조는 절대 못 따라오는 거죠.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출발점부터다 다른 거죠. 오십 키로 되는 라이트급 선수와 최흥만은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남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각자의 특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살아야지요.

이런 벽체 구조를 이용해서 로마 건축의 웅장한 기념비성, 고평적인 물성, 삼차원 고평체, 이런 특징을 브라만테가 완성시킨 성기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르네상스 기독교 건축의 두 번째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에서는 성소를 대폭 강화하고 복합공간을 통해서 중앙 집중성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알베르티의 초기 르네상스까지는 없던 브라만테만의 경향이죠.

▲ 오더 상징주의란?

그 다음이 오더 상징주의. 오더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았던 것이죠. 도리스식 양식이 갖는 원형성. 규모는 작지만 원형의 순도를 이용해서 베드로의 순결의 나타내는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리스식 오더의 간결성, 평면에 나타난 원형의 원형성이죠. 이 원형은 동그랗다는 것이고 이 원은 이 원(原)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85이죠. 여기서는 1층을 보지요.

벽기둥이 주요 구조로 쓰입니다. 축조성과 로마 건축을 상징하고요. 1층의 사각 벽기둥은 투스칸식입니다.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축조성이죠. 여기에다가 이오니아식 벽기둥을 덧

붙입니다.

네 모서리에 조금씩 튀어 나온 것이 투스칸식이고 거기에 벽기둥으로 더해진 얇은 벽기둥이 이오니아식입니다.

이오니아식 양식은 산타 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종의 의인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층을 봅시다. 컴포지트 양식이 주 양식입니다. 축조성 및 의인화를 겸한 것이죠.

1층은 튼튼한 걸로 쌓고 2층은 연약한 이미지인 거죠. 둘 다 의인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막힌 처리는 벽기둥과 독립원형기둥을 섞어 씁니다. 벽기둥은 1층에서부터 2층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독립원형기둥은 아치의 종석 위에 맞춥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약해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날씬한 독립원형기둥을 세워서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더를 이용해서 절묘한 의미구조를 창출하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서리에서 나타납니다. 브라만테는 밀라노 시절부터 자신만의 모서리 처리 법칙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168과 같은 띠 모양의 부재를 넣어 이오니아 양식을 변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더를 이용한 은유 상징주의, 혹은 오더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이 라파엘 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만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라파엘이 이 건물을 사서 라파엘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브라만테의 작품이죠. 1층은 rustication의 아치이고, 2층은 쌍기둥이 나옵니다. 2층도 기본적으로 벽채 구조지만 쌍기둥을 둠으로써 열주의 가벼운 분위기, 가구식 구조의 가벼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rustication이라고 하는 성벽 축조술이구요.

둔탁한 돌처리와 가구식 돌처리의 날씬한 쌍기둥을 대비시킴으로써 축조성을 표현한 예가 됩니다.

◆ 2교시: 라파엘의 건축

▲ villa의 성격

그 다음이 villa 메디치입니다. 교외 이상을 나타내는 거죠. palazzo와 villa가 유력 가문의 세트로 구성되죠. 잘 사는 사람들은 교외에 별장 하나씩 갖잖아요. 물론 지금의 별장과

는 다릅니다. palazzo는 정치, 경제를 총괄하던 현실적인 공간이고 villa는 문화예술의 공간이죠.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죠. 식객(食客)이죠. 지금처럼 예술작품을 시장에 내놓고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이후입니다. auction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요. 그 전까지 예술가들은 밥벌이가 막막했지요.

교황청 같은 데서 돈 주고 고용하는 것이 다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살길이 막막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승업 같은 경우만 봐도 왕궁에 뽐혀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교시절에 그림 그려서 돈 벌기기 어렵죠.

귀족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공간이 villa였습니다. 예술가들 불러서 방 한 칸 주고 밥 주면서 물감 사주고. 지금 우리나라의 별장과는 다르죠. 오늘날 별장은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이죠. 쪽 비워두다가 일 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이때에는 상당한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기능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한 금융가문이나 주변의 농지를 다스릴 경우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 등 다목적이었지요. 휴양, 문화, 농지관리 등 다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방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villa는 자연과 상당히 친해지려는 특징을 가지지요. 여기서 자연에 대한 태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식으로 자연과 완전한 동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에 대해 잠정적인 거죠. 집은 높은 기단 위에 올립니다. 마치 높은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서양의 자연관이 잘 반영이 되지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파라다이스의 한 형식으로 봅니다. 낙원이죠. 이것의 출처는 로마 시대의 villa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림 192입니다. 피렌체 근교에 있는 겁니다.

villa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아직도 굳건합니다. 여기를 보면 정육면체의 골격이죠. 출입구만 신전 파사드를 소품화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전도가 된 겁니다.

신전 파사드가 훨씬 커야 하죠. 건물 전면을 차지해야 하죠. 그리고 기단은 porticus 형식입니다. 로마 건축했을 때 나온 거죠. 신전 파사드가 고전의 원형이라면 porticus의 기단과 육면체의 윤곽은 실용성을 상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실용성을 원형성보다 상위에 두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외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적인 인공성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비의 성모 마리아라는 건물이 있죠. 한쪽 끝의 처리는 앞에서 보았던 브루넬레스키의 구성물 안치소에서 따온 것이죠. 외관과 실내에 나타난 기하 장식주의는 알베르티에게서 따온 것이죠. 이런 선례들을 모아 중앙 집중형 건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라파엘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을 브라만테의 제자였고 건축으로 보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예술을 대표하는 3대 저장으로 얘기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물은 전혀 안 남겼고 미켈란젤로는 건축을 가장 많이 남겼죠. 그러나 주 분야를 보면 조각에서 가장 뛰어났죠. 물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조각이 제일 뛰어났고 라파엘은 회화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손끝 기교로 치자면 라파엘이 거의 서양 미술사 전체에서 최고일 겁니다. 천재는 요절한다는 공식을 보여주었죠. 건축가들은 오래 삽니다. 미켈란젤로도 천재인데 90 가까이 살았거든요. 대부분 80을 넘어요.

그런데 라파엘은 요절을 합니다. 건축을 많이는 못 남겼는데 몇 가지 중요한 예들을 남깁니다. 총독궁에서 영향을 받고 1504년에서 8년 사이에 브루넬레스키나 알베르티의 건물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유적을 보고 교황청에 들어가게 되죠. 라파엘은 마흔을 채 못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브라만테의 공방장 자리를 이어받아 일하게 됩니다.

라파엘은 16세기 로마학파의 중심인물이죠. 그래서 라파엘은 누구보다도 로마 고전 유적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부활시키는 발굴단장을 겸해서 건축 분야에서 로마 고전을 부활하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회화 배경에도 활용하지요. 라파엘의 그림들을 보면 건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가 210, 211 두 개인데요. 211인 아테네 학파라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도를 짰거지요.

라파엘 그림을 보면 배경에 건축 투시도에 가깝습니다. 회화작품이라기보다는 투시도에 가까운 정도로 건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런 면은 성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내용이지요.

반면에 이것을 회화적 기교로 각색을 많이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매너리즘의 효시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라파엘의 제자인 줄리오 로마노에 오게 되면 갑자기 매너리즘의 절정기에 다다르게 되지요.

로마노까지 묶어 생각한다면 라파엘을 매너리즘의 효시로 보기도 합니다. 라파엘 건축은 성기 르네상스는 압축공간이라는 기법으로 나타냅니다. 매너리즘은 회화 장식주의라는 기법으로 나타냅니다.

압축공간이라는 것은 로마 고전주의의 거대 공간을 휴먼 스케일로 줄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마 고전주의는 스케일이 큰 편입니다. 르네상스는 휴먼 스케일이므로 이런 큰 스케일을 줄이는 거지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주로 브라만테가 사용했던 것으로서 원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다 넣되 규모만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압축공간이지요.

전체를 85퍼센트로 축소하는 거죠. 하나도 빠지 않고요.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회화 그림 중에 아테네 학파라는 그림이죠. 여러 공간이 급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것이 또 잘 드러난 것이 키지 채플입니다. 브라만테의 템페토와 비교해 보자면 공간이 겹공간입니다. 부재는 많이 생략하고 원형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초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겹공간이라면 키지 채플은 간격을 중시합니다.

공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초점에 사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라파엘은 벽면 전체를 온갖 종류의 둠 공간을 짜는 건축 어휘를 폴세트로 사용하죠. 이런 구성은 큰 규모의 건물에 써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이것을 축소, 압축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그 다음 남는 벽면은 바탕면으로서 그림, 조각 등을 새기죠. 이 건물은 규모는 작는데 있을 것은 다 있고 벽에 빈틈 하나 없이 건축 부재, 몰딩, 장식, 회화, 조각들로 꽉 차있습니다.

브라만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이것 자체가 성기 르네상스의 다양성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회화장식주의이기도 하죠. 회화를 대응시키는 건축 부재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13이죠.

아키 볼트에다가 회화 장식들을 대응시킨 겁니다. 보통은 건축 부재는 놔두고 벽에다 회화 장식을 집어넣는데 라파엘은 드물게 건축 부재에 이것을 대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을 단순한 표피문향으로 보지 않고 축조성과 기능체계에 대응하는 구성법칙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라 madama입니다. 그림 223입니다. 이것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은행 건물로 쓰이고 있는데 실내는 개방을 안 합니다. 많이 부서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복원한 것이 그림 223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평면입니다. 실내는 여전히 회화장식주의로 처리했고 평면은 같은 방이 없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에 축 구성이 있기는 하죠. 계단 가운데 자르고 뒤에 반원형 공간 중심으로 자르고 지나가는 중심축이 있기는 한데 좌우대응이 아닙니다.

비대칭이고 각 방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지면서 유기구성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퀀스 공간을 연속 개념으로 보는 거죠. 다양한 장면들을 모아놓은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건축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실내에서 손을 떼는데요.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각 방의 분위기까지도 건축가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고 각 방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면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시퀀스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유기 구성의 기본 요소인데 라파엘이 이 개념을 네로의 황금주택에서 가져옵니다. 황금주택은 라파엘이 발굴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발굴하면서 거기서 본 것을 활용한 거죠.

네로의 실내도를 보면 그 안의 장식이 보입니다. 물론 발굴 당시에는 황금주택의 장식은 남아 있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합니다. 네로가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살았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라 회화장식주의라든가 압축공간에 맞게 황금주택의 장식 구성을 여러 방향으로 변형한 거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르네상스의 이상에 맞게 잘 각색해서 새로 풀어낸 것이지요.

그런 것이 천재성의 핵심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재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똑같이 그려내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문화, 역사를 읽고 긴 끈 속에서 자기 시대의 문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그것을 역사적 연속성과 자기 시대만의 새로운 이상을 혼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건축가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지요. 르네상스가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예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면 유적 발굴해서 그것을 그대로 베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 둘을 잘 합쳐낸 점이 르네상스 건축의 핵심인 것이죠.

브루넬레스키부터 라파엘까지 이르는 중요한 건축가들도 방식과 내용과 결과가 각각 다르지만 큰 공통점은 거시적 문명 차원의 통합에 있다는 겁니다.